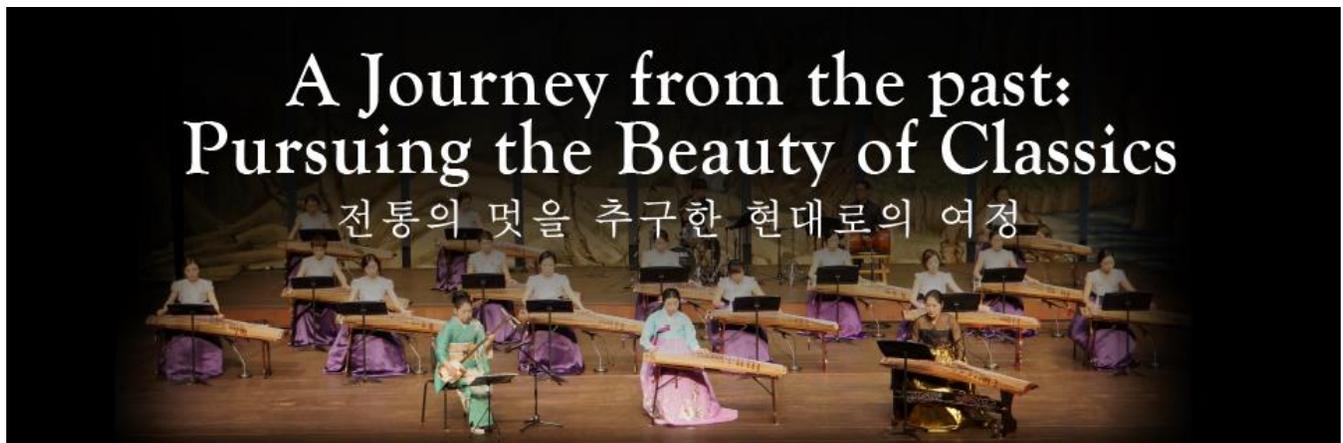


[제2018-50호]

 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4쪽
배포일시	2018. 7.2(월)	담당부서	LA한국문화원 공연
연락처	323-936-3015/tammy@kccla.org	담당자	Tammy Chung

ARI Project <전통의 멋을 추구한 현대로의 여정> 개최



- ▶ 공연명 : 공연작품 공모전 「2018 ARI Project」
“전통의 멋을 추구한 현대로의 여정”
(A Journey from the Past: Pursuing the Beauty of Classics)
- ▶ 일 시 : 가야금&단소 워크숍-2018.7.12(목) 14:00
공연-2018.7.13(금) 19:30
- ▶ 장 소 : LA한국문화원 3층 아리홀
- ▶ 주최 : LA한국문화원, 일파가야금합주단
- ▶ 온라인 예약 : www.kccla.org
- ▶ 붙임 : 공연 포스터 및 사진자료 등 각 1부
- ▶ 공연문의 : LA한국문화원 323-936-3015 공연담당 Tammy Chung

LA한국문화원(원장 김낙중)은 공연작품 공모전 「2018 ARI Project」 여덟번째 무대로 일파가야금합주단 (단장 장혜숙)을 선정하여 “전통의 멋을 추구한 현대로의 여정 (A Journey from the past "Pursuing the Beauty of Classics")” 공연을 7.13(금) 19:30 문화원 3층 아리홀에서 개최한다.

오랜 전통 연주단체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는 일파가야금합주단은 1996년 창설되어 부산 경남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가야금 전문 연주단체로 20여회의 정기공연과 해외초청공연 등 약 150여회의 크고 작은 공연을 가진 부산광역시지정 전문예술단체이다.

일파가야금합주단은 순수 위촉 초연곡과 전통민요, 전통국악 범주안의 연주곡을 주 레퍼토리로 구성하였다. 또한 미주 지역에서 접할 기회가 없었던 <박종기제 대금산조>를 부산대 박환영교수가 연주하고 국립부산국악원의 황한나의 해금협주곡 <미리내> 또한 아름다운 선율의 멋을 선사 할 것이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연주되는 단소협주곡인 <단소와 관현악을 위한 수상곡>은 무형문화재 전수조교인 장명화(국가무형문화재 제83-1호 구례향제줄풍류 전수교육조교)가 협연한다. 마지막 연주곡으로는 KBS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 이준호가 심혈을 기울여 작곡한 가야금협주곡 <그리움>을 단장 장혜숙 (국가무형문화재 제83-1호 구례향제줄풍류 이수자)의 가야금연주와 출연 전 단원들의 협주무대로 전통과 현대로 가는 멋의 복합적인 선물을 보여 줄것으로 기획하였다.

특히, 공연하루 전날인 7.12(목) 14:00 에는 LA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전통공연가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단소 및 가야금> 전통무형문화전수워크숍도 진행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장명화 교수가 단소(팔도 민요)와 장혜숙 교수가 가야금 산조의 백미라 일컫는 최옥삼류 산조를 가르칠 예정이다.

단소로 배우는 팔도 민요는 각 지방에 따라 다른 형식의 특징이 있는데 서울, 경기지역 및 전국적으로 애용되는 아리랑과 경상도 지역의 밀양아리랑 강원도의 정선아리랑, 전라도 지역의 진도아리랑이 대표적이다. 지공(손가락으로 열고 막는 구멍)이 5개뿐인 단소로는 나오지 않는 음역이 있는 민요를 제외하고 아리랑과 밀양아리랑 및 진도아리랑을 배워본다.

가야금 산조의 유파에는 최옥삼류, 강태홍류, 김병호류, 김죽파류, 성금련류 등 크게 5류파로 나뉜다. 이번 워크숍에는 최옥삼류 중 중간박자로 연주되는 중모리를 배울 예정이다. 산조의 특징은 농현(줄을 흔드는 소리)이 깊고 보다 남성적인 힘찬 가락이 많으며 말발굽 흥내를 내는 자진모리는 산조의 멋이다.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공연자 및 일반인들에게 팔도민요와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를 새롭게 배우고 체험하면서 한국 전통 음악을 전수받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예정이다.

김낙중 문화원장은 “이번에 초청된 일파가야금합주단은 부산 지역의 특성을 살린 레퍼토리의 개발과 이해하기 쉬운 연주로 대중성을 확보하여 관객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는 공연단체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온가족이 함께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우리음악을 감상할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라고 밝혔다.

공연의 관람 및 참가는 무료이며, 사전에 온라인 또는 전화로 예약을 해야 한다.

*공연작품 공모전 <ARI Project>는 공모를 통해 공연단이 LA현지 관객을 대상으로 우수한 공연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LA한국문화원 대표 공연프로그램이다. 올해에도 현대무용, 오페라, 클래식, 전통무용, 국악, 재즈, 탈춤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통의 멋을 추구한 현대로의 여정 (프로그램)

* 공연해설 : 장명화 (국가무형문화재 제83-1호 구례향제줄풍류 전수교육조교)

1. 아리랑변주곡

가야금 solo/김명선 크라리넷/손영채 장고/윤승환 가야금1 / 이하빈 김태리 박 진
가야금2 / 김소라 김미나 손자경

일파가야금합주단에서 위촉 편곡한 곡으로 우리나라의 대표민요인 아리랑을 변주하여 solo가야금과 해금으로 서로 가락의 변화를 주며 2부 파트로 나뉘어져 변화된 가락의 멋을 25현가야금으로 연주할 수 있게 편곡하여 전통적과는 다른 멋을 추구 한다.

2. 25현 5중주 / 하바나길라(Hava Nagila)

장고/윤승환 가야금1/김명선 가야금2/김미나 가야금3/이하빈
가야금4/김태리 이예빈 가야금5/김소라 손연화

일파가야금합주단에서 위촉 편곡한곡으로 1960년에 제작 상영되었던 '영관의 탈출'의 주제곡으로 이스라엘 히브리민족의 고유 민요인데 25현 가야금곡으로 편곡하였다.

3. 대금독주 / 박종기제 산조

대금/박환영 장고/윤승환

대금산조는 진도 출신의 박종기(1879~1941)명인이 효시가 된다. 그는 판소리의 좋은 대목을 대금 가락으로 엮어 소리 더늠 대금산조의 틀을 완성하였다. 특히 춘향가의 군로사령 나가는 대목을 연주한 설령제 가락은 대금산조의 백미로 대부분의 대금산조 유파에서 인용하는 멋진 가락이다. 박종기제 대금산조는 현행 산조와 비교할 때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 진양 우조의 리듬에 2분박 형태가 자주 출현하며 6박 한배가 준박이 많다. 따라서 리듬의 신축성이 크므로 고수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또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미분음 형태가 자주 나타나며 설령제가 많아 전체적으로 호쾌한 분위기가 주류를 이룬다. 또한 중중모리가 없고 청변화도 없는 초창기 산조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4. 해금독주와 25현금을 위한 '미리내'

해금/황한나 장고/윤승환

가야금1/권자경 김미나 가야금2/김명선 이하빈 가야금3/김소라 손연화 이예빈

어두운 밤하늘에 수없이 펼쳐있는 별빛의 물결 미리내를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해금연주로 표현하였다. 미리내의 춤을 추는 듯한 모습을 왈츠리듬으로 표현하였다.

5. 25현 가야금 3중주 '한오백년'

가야금1/ 김명선 김미나 가야금2/ 권자경 이하빈

가야금3/ 손연화 김태리 이예빈 장 고/ 윤승환

가장 애상적이면서도 좋아하는 대표적인 민요인데 25현 가야금곡으로 편곡하여서 12현 가야금 연주와는 또 다른 세계의 멋을 느낄 수 있는 곡이다.

6. 단소와 관현악을 위한 수상곡

단소 solo /장명화 크라리넷/손영채 대금/엄익준 해금/황한나
가야금1/김명선 가야금2/김미나 하프선율/이하빈 거문고/김소라
대피리선율/이예빈 소금선율/김태리 아쟁선율/김현지 장고/윤승환

수상곡은 한국전통음악인 서도소리 '관산용마'와 천안상거리, 뱃노래, 꼭두각시, 등의 선율을 주제선율로 삼아 국악관현악이 어우러지며 서양악기로 표현했던 선율을 음색이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국악적으로 표현한 곡이다.

7. 캐논변주곡

고음가야금/이하빈 김현지 김태리 중음가야금/김미나 이은영 이예빈
저음가야금/김소라 손자경 박진장고 / 윤승환

바로크시대 유명작곡가이자 오르간의 황제로 유명한 요한 파헬벨의 작곡으로 최초 현악 4중주 현성으로 작곡된 캐논 변주곡은 본래 법칙과 규칙이란 의미를 담고 있는 그리스어에서 부터 유래하고 있는데 돌림 노래를 의미하는 클래식음악 캐논 변주곡은 르네상스 시대 때부터 유행하였다 고 한다. 캐논 변주곡은 베이스의 고정저음과 이에 기반하여 반복되는 화성을 바탕으로 하는 형식이다.

8. 25현가야금 협주곡 '그리움'

가야금 solo/장혜숙 25현/권자경 장고/윤승환
가야금1/김명선 이예빈 가야금2/이하빈 김태리 가야금3/김소라 김미나 이은영

오래전의 명인들과의 추억을 그리움으로 표현한곡으로 2017년에 일파가야금합주단에서 위촉 작곡한곡 이다. 가야금 solo로 시작되는 부분은 산조의 표현을 나타내었고 산조의 어법을 현대적인 리듬으로 복합적으로 이용하여 리듬에 변화를 주었다.

* The program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끝/

단장							일파가야금합주단 연주자명단								
															
장혜숙 Jang Hyesuk Artistic Director, Gayageum	박환영 Park Hwanyoung Daegum	장명화 Jang Myunghwa Danso, Soguem	손영채 Son youngchae Clarinet	엄익준 Eum Ikjun Daegum	황한나 Hwang Hanna Haegum										
Gayageum / 가야금															
															
권자경 Kwon Jakoung	김명선 Kim Myoungseon	김소라 Kim Sora	손연화 Son Yeonhwa	김현지 Kim Hyeonji	김태리 Kim Taeri	이예빈 Lee Yebin									
															
윤승환 Yoon Seunghwan Percussion	김미나 Kim Mina	이하빈 Lee Habin	손자경 Son Jakyong	이은영 Lee Eunyoung	박진 Park Jin	박철의 Park Chuleui Stage/무대진행									